



# 영국 거장 켄 로치 2번째 황금종려상

### 박찬욱 감독 '아가씨' 수상 불발 심사위원대상은 자비에 돌란 감독

칸 영화제의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이 영국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돌아갔다.

22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칸 루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제69회 칸 영화제 폐막식에서 영국 좌파성향의 노장 감독 켄 로치(80)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한국영화로 4년 만에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는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 감독은 앞서 두 차례 초청에서 심사위원대상과 심사위원상을 받아 수상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결국 불발에 그쳤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평생을 묵수 일을 하다 건강 악화로 일을 못하게 된 다니엘 블레이크가 실업보험을 받으려고 애쓰는 과정을 그리며 영국의 관료주의와 복지제도의 맹점을 비판한 영화다.

켄 로치는 이번 영화를 포함, 칸의 레드 카펫을 13번이나 밟을 정도로 칸의 총애를 받아온 감독이다. 그는 2006년에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으로 이미 한 차례 황금종려상을 받아 2회 수상자 대열에 들게 됐다.

황금종려상의 최다 수상 기록은 2회로, 현재까지 장 피에르뤼크 다르덴 형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에미르 쿠스투리차, 이마무라 쇼헤이, 마하엘 하네케 등 7명에 불과하다.

2등상인 심사위원대상은 '칸의 기린아'인 캐나다의 자비에 돌란 감독이 연출한 '단지, 세상의 끝'으로 돌아갔다.

'단지, 세상의 끝'은 불치병에 걸려 가족을 떠나 전 세계를 떠돌던 작가가 12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올해 27세인 돌란 감독은 영화 시상회 후 언론으로부터 저조한 평가를 받았으나 심사위원대상을 받아 칸의 총애를 받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 제 69회 칸국제영화제 수상작·수상자 명단



황금종려상	'나, 다니엘블레이크' (켄로치감독, 영국)
심사위원대상 (그랑프리)	'단지세상끝에서' (자비에돌란감독, 캐나다)
감독상	리스티안문주 (작품 '바칼로레아', 루마니아), 올리비에아사야스 (작품 '퍼스널쇼퍼', 프랑스) 공동수상
심사위원상	'아메리칸허니' (앤드리아아널드감독, 영국)
각본상	'세일즈맨' (아쉬가르파르하디, 이란)
여우주연상	자클린호세 (작품 '마로사', 필리핀)
남우주연상	사하브호세이니 (작품 '세일즈맨', 이란)
단편상	'타임코드' (후안호히메네스감독, 스페인)
황금카메라상	'다빈'(우다벤이나감독, 프랑스)
주목할만한시선상	'올리메키의가장행복한날' (유우쿠오스마넨감독, 핀란드)

연합뉴스

감독상은 '바칼로레아'를 연출한 크리스티안 문주와 '퍼스널 쇼퍼'를 출품한 올리비에 아사야스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심사위원상은 영국 출신 여성 감독인 앤드리아 아널드가 감독한 '아메리칸 허니'가, 각본상은 '세일즈맨'을 쓴 아쉬가르 파르하디가 받았다.

남우주연상은 '세일즈맨'의 사하브 호세이니가, 여우주연상은 '마 로사'의 자클린 호세가 각각 쟁겼다.

이란 감독 아쉬가르 파르하디가 연출한 '세일즈맨'이 각본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은 것은 한 영화에 복수의 상을 잘 수여하지 않는 칸 영화제의 관례에 비했을 때 이례적이다.

연합뉴스

## “최민수 선배는 아버지 같은 버팀목이죠”

### 드라마 '대박' 연영군 역 여진구

“최민수 선배가 숙종이 아편을 했다는 설정을 한 뒤 (극 중 아들인) 저를 불러내 ‘왕을 할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 장면이 있는데 충격받았어요.” 여진구(19)는 20일 가장 기억 남는 장면을 꼽아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여진구는 “조명을 받은 채 약간 낮이 나간 최민수 선배를 바라보는데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연영군은 숙종(최민수 분)의 아들이자 훗날 영조가 되는 인물로, 구중궁궐에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고군분투한다.

여진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SBS 제작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근석(백대길 역) 형이 뽕을 먹고 똥통에 빠지는 등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장면을 많이 찍었다면, 저는 정신적으로 선배들과 씨름하는 장면이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연영군은 어디 기밀 곳 없는, 외롭고 위태로운 왕자” 라면서 “지금껏 연기하면서 이런 느낌이 든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아버지를 앞에 두고도 아버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기댈수록 밀려지는 느낌이 들고요. 살아남고자 고군분투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멍해질 때가 있어요. 궁궐 세트에서도 음산한 곳, 그늘진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최민수와 여진구는 카메라 앞에서와 달리 평소에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가깝다.

“최민수 선배는 제가 해낼 때마다 잡아주고, 연영군 캐리



터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많은 충고도 해 주는 버팀목이세요. 항상 저보다 더 연영군을 연구해 오시는 것 같아요.”

여진구는 장근석에 대해서는 “선배 연기자들이 흡입력 있게 저를 끌고 간다면, 장근석 형은 진형처럼 같이 손잡고 뛰어드는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다.

앞에 앉은 장근석은 이에 “저보다 열 살이나 차이 나지만 신뢰 있는 목소리와 눈에서 나오는 뜨거운 에너지가 대단한 배우”라고 추켜세웠다.

3월 28일 전국 시청률 11.8%로 출발한 '대박'은 현재 8~9%를 오가고 있다. 화려한 출연진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다.

여진구는 “드라마 이름이 '대박'이라 내심 (흥행을) 기대했다”면서 “시청률이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아직 8회나 남았으니 포기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MBC, 5·18 특집 다큐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

### 전국서 광주 진실 알린 사람들…26일 방영

광주MBC가 5·18 36주년을 맞아 80년 5월 광주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희생된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6일 밤 11시 방송되는 특집다큐멘터리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는 광주가 아닌 전국 각 지역에서 광주 진실을 알리다가 희생된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프로그램이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 출연한 광주 출신 배우 박철민씨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5·18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광주 학살을 알리는 전단을 뿌리고 투신한 고(故) 김의기씨, 1980년 6월 ‘광주시민의 낯을 위로하며’라는 성명서를 뿌렸지만 들어주는 이가 없자 결국 분신을 통해 광주를 알린 부산 출신 노동자 고 김종태 씨 등 5·18 기록이나 평가에서도 배제된 희생자를 조명한다.

장이기씨는 1986년 경기도 예비군 훈련소에서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처단하자”고 외친 뒤 고문 끝에 사를 만에 숨졌고, 이길상씨는 1980년 11월 광주학살 만행을 알리는



전단을 뿌리다가 붙잡혀 고문을 당한 후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투신했다.

특히 5·18 2주기 집회를 준비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간 옥고를 치르고 나온 후 정신질환이 발병한 고 김학복, 차호정 씨의 비극은 이번 취재에서 처음 밝혀진 사실이다.

프로그램은 소중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지키고자했던 가치와 그들이 알고자 했던 진실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되묻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TV 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우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 블로그 골지락 30 아침 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추준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월화특별기획 (문스터)(재)	00 닥터 365 05 세기의 라이벌 미라클 만든 천재들(재)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무지토코스 가요1번지 55 별별가족(재)	00 부처님오신날 특집 출가, 그들이 산사로 간 까닭은?	20 문화사색(재)	55 TV블로그 골지락
2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풀꽃 30 푸르기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00 숨터(재) 0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5 튜닝생활제조사	00 자동차부채상 위기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똑? 똑! 키즈스쿨 55 아빠 어릴 적엔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푸르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골지락 20 일일드라마 (미녀의 성)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킹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00 월화특별기획 (문스터)	00 월화드라마 (대박)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 콘서트 필 2016 세계진화경관지인박람회 편	10 우리동네 예체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20 해외걸작다큐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 생생영어 05:30 건강현아침 05:4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병하의 대여행 아이슬란드)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정미경의 순두부찌개와 더덕 무침)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5:00 모피와 친구들 15:15 세계사 시간여행 15:30 피터레빗 15:40 꼬마기사 마이크(재) 15:50 보로로와 노래해요 16:00 코코몽3 16:30 코코고 다크호스 16:45 덩동영 유치원1~3(재) 17:30 뽀롱뽀롱 보로로 17:45 로보가 폴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19:00 레이디 버그(재)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수산물 가공 공장>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미지의 땅, 내륙 동남부 기행 2부 자연과 공존하는 사람들> 21:30 한국극 <내 마음의 울릉도 2부 나를향기는 바람을 타고> 21:50 EBS 다큐프라임 <2부 민주주의의 엔진, 갈등> 22:45 리얼극장-행복 23:35 시대강감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자연과 인간의 통합적 이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4일(음 4월 18일 丙午)
子	48년생 지향하는 기준을 높게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생산적이다. 60년생 일거양득의 효과가 크다. 72년생 짐작을 버리고 자유로운 상태로 나누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84년생 완벽하게 합치하기란 힘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9, 15	42년생 추진은 되겠지만 성공과 실패 가능성의 비율은 반반이다. 54년생 혼잡한 상태에서 바쁘게 진행될 것이니 집중하여야. 66년생 사소한 흠을 주의하라. 78년생 내내온다만 서로 맞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89, 24
丑	49년생 생기는 하나 만족시킬 정도까지는 되지 못하겠으니 큰 기대는 하지 말라. 61년생 밤샘하면 놓칠 수도 있다. 73년생 미리 준비 해두어야 목전에서 당황하지 않으리라. 85년생 오해로 인한 시비가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0, 71	43년생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절대 못 찾을 것이다. 55년생 드디어 희망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나라. 67년생 모두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79년생 실재하지 않던 아무런 의미가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67, 03
寅	50년생 임시변통적인 처리는 곧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니 장기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 62년생 실력부터 키우고 불 일이 다. 74년생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다. 86년생 적극적인 참여가 보람을 가져다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6, 42	44년생 현재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할로가 트이게 된다. 56년생 발전적인 충돌 양상을 띠고 있음을 감안 하자. 68년생 편향을 버리고 중용으로써 삼가면 만사가亨통할 것이다. 80년생 고귀함을 이루는 마당이 펼쳐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6, 18
卯	51년생 대중소이하니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관발할 수 있을 것이다. 63년생 흑과 백으로 명암을 분명히 하라라. 75년생 번거로우면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도 괜찮다. 87년생 옛 것은 버리고 새것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 행운의 숫자 : 28, 27	45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57년생 대체로써 자리 잡았으니 강구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을 기다려라. 69년생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보리라. 81년생 흠속에서 묻힌 옥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6, 04
辰	40년생 마무리까지 잘 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자. 52년생 예봉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64년생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 76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것이다. 88년생 급히 선회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9, 52	46년생 전환점을 맞이할 갈림길에 서 있다. 58년생 종류와 형태에 따른 변수의 폭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70년생 시작할 때 상징적인 면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82년생 부작용의 원인이 해소되어야 생산적으로 전환된다. 행운의 숫자 : 65, 17
巳	41년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장이 많을 수도 있다. 53년생 허탈해 하는 형상이다. 65년생 인재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나. 77년생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면 차치해도 된다. 89년생 실속을 차려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31, 53	47년생 소신과 주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59년생 향후의 달성보다 현재의 유지에 신경 쓸 때다. 71년생 피하려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83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자리에서 길일을 만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1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